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의 든든한 후원자 2 -프로보노” 최민혁 법무사

충남사회적경제 도민기자단
김 효 성

사회적경제 도민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현장을 찾아보고 관련된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주어진 것은 기자에게는 활동의 또 다른 즐거움이었다. 지난 2021년 프로보노 1편에 이어 충남사회적경제기업의 각종 법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오랜 기간 사회적경제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최민혁 법무사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대화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그의 철학과 비전을 들어볼 수 있었다.

최민혁 법무사는 천안고등학교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현재 아산시청 앞에 위치한 법무사 최민혁 사무소를 운영하며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문위원(법률상담 분야)으로 활발한 대외활동 및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법무사 최민혁 사무실

그는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만난 충청남도에는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인연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주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설립 및 변경 등의 업무를 돕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에서 진행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법인설립교육 등 예비 사회적경제인들에 대한 교육에도 적극 참여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폭 넓은 지식과 이해를 갖춘 전문가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여러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전문가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영리기업과 동일시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기업이 겪는 고충들에 대해 세심히 살피고 조력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영리기업들의 업무와 관련된 익숙한 절차대로 진행하면서 곤란함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전문가를 찾기 위해 많은 수고를 들이며, 공익법무법인 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개별 상담을 위해 상당량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시간·비용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위의 상황처럼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그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자문위원으로서, 늘 최선을 다하며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오고 있다. 지난 2년 간 20여건의 법무 상담을 진행하며 여러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였으며 더불어 높은 만족도로 호평을 받고 있다.

상담에서의 높은 만족도는 기업 측에서 법무사를 먼저 찾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처리해야 할 각종 절차와 관련하여, 기업의 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법무상담서비스의 주요 성과인 제도개선, 규제완화 등을 위한 센터의 노력에 법적 자문 및 의견서를 제공하여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민원해결 및 규제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활동을 선도적으로 수행하였던 충청남도가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출범하게 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었습니다.
충남사회적경제의 변곡점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센터의 자문을
담당하게 되어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참여하였습니다.”***

최민혁 법무사는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스스로도 사회적경제의 현장에서 활동 중이다. 그는 자신이 성장한 지역사회에서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역을 위한 공헌활동

은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업활동에 따른 피해의 사전예방과 사후구제를 위한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자문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기업의 어려움에는 경중이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처한 상황은 나 자신에게 현재의 가장 큰 어려움이기에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일말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뿐이다.’라며 기업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기업 문제 해결에 있어 앞으로도 개척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대한 그가 가진 신념의 근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며, 우물을 누가 뚫는지 그 근원을 생각한다(음수사원 굴정지인 : 飲水思源 掘井之人)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제가 어디서 날고 성장하며,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항상 기억하라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 남북조시대의 대표적 문인인 유신(庾信)의 유자산집(庾子山集) 7권 징주곡(徵周曲)에서 나오는 말로 ‘나의 존재는 충남의 토양에 뿌리내리고 지역을 밑거름삼아 현재에 이르렀음을 늘 가슴에 새겨 놓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그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나아가 충남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사회에 잘 뿌리내리면서,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자양강장제’와 같은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향후 그가 사회경제기업과 펼쳐나갈 활동을 더욱 기대해본다.